

## 주요 내용

### 1. [한국인의 인생 목표]

5~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 한국인 절반 이상이 '돈'!

###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유초중고 학생 수 감소 실태
- 2) 부모 소득과 자녀의 대학 진학률



## 5~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 한국인 절반 이상이 ‘돈’!

매년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을 보면 우리 국민의 관심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자기계발서’ 혹은 ‘경영서’가 상위권에 분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의 꿈과 목표가 향하는 곳이 ‘나를 계발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성인 남녀) 1,000명에게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는지,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저축/투자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 만들기’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물론 연령대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돈’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가치를 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코로나19, 경제 침체 등으로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나아질 희망이 있다’고 인식하는 한국인이 80%나 되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관적인 희망을 기대하는 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넘버즈 174호>에서는 최근 발표된 트렌드모니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꿈과 인생 목표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에게 어떤 투자를 하며,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목회자들이 새해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꿈꾸고 계획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길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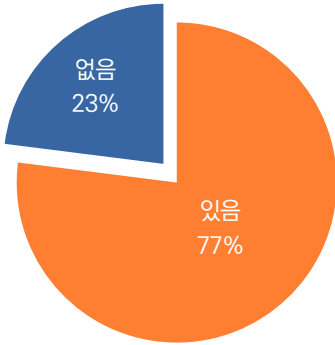
# 01

## [한국인의 꿈과 희망]

### 5~10년 내 이루고 싶은 꿈(목표) 있다 77%!

- ▶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는지’ 물었더니 ‘있다’는 응답이 77%로 높게 응답됐다.
- ▶ 반면, 4명 중 1명 가까이는 꿈이나 목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0년 내 이루고 싶은 꿈/목표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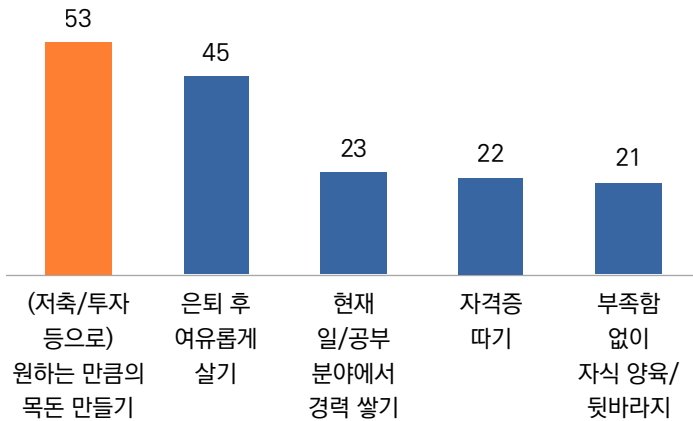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현대인의 꿈, 적성 및 인생 목표 관련 조사, 2022.06.22.(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3.23.~03.25)

### ◎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 한국인 절반 이상이 ‘돈’!

- ▶ ‘이루고 싶은 꿈(목표)’은 구체적으로 ‘(저축/투자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 만들기’가 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 45%, ‘현재 일/공부 분야에서 경력 쌓기’ 23%, ‘자격증 따기’ 22% 순이었다. 상위권에 랭크된 대부분이 ‘돈’과 ‘경력’ 쌓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

[그림] 5~10년 내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꿈/목표 (꿈/목표 있는 응답자, 중복응답, 상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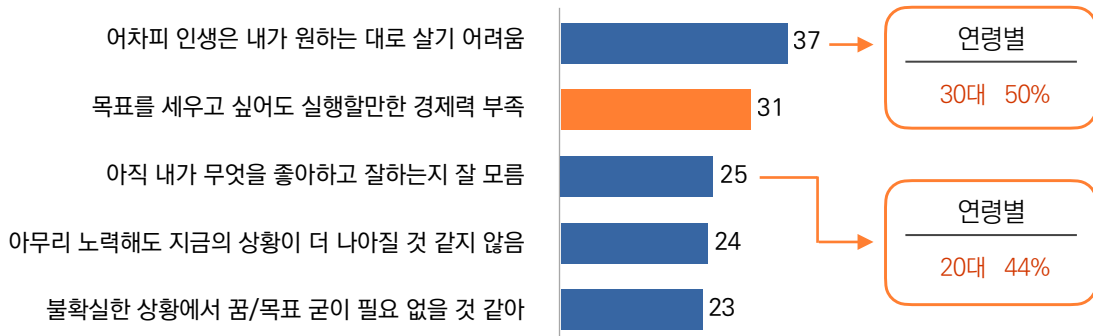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현대인의 꿈, 적성 및 인생 목표 관련 조사, 2022.06.22.(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3.23.~03.25)

## ◎ 꿈(목표)이 없는 이유, 10명 중 3명 '돈'이 없어서!

- ▶ 5~10년 내 이루고 싶은 꿈/목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어차피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어려움'(37%), '목표를 세우고 싶어도 실행할만한 경제력 부족'(31%), '아직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름'(25%) 등의 이유를 들었다.
-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아직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잘 모름'의 응답률이 44%로 '진로 및 적성 탐색'이 안 된 경우가 적지 않았고, 30대는 '어차피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어려움'을 절반(50%)이나 꼽아 '청년들의 삶의 고충'을 드러냈다.

[그림] 5~10년 내 이루고 싶은 꿈/목표가 없는 이유 (이루고 싶은 꿈/목표 없음 응답자,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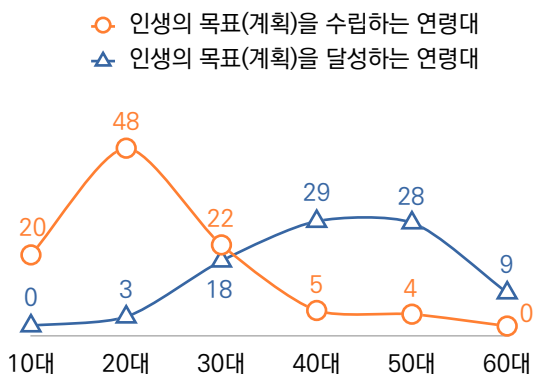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현대인의 꿈, 적성 및 인생 목표 관련 조사, 2022.06.22.(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3.23.~0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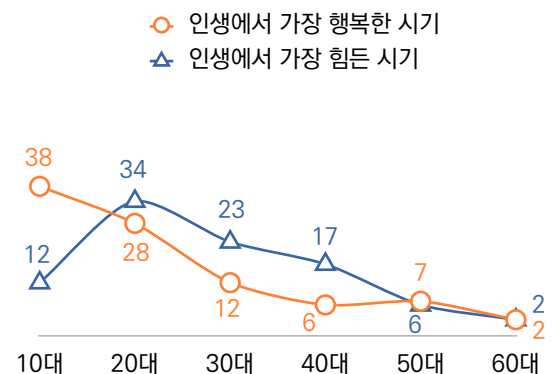
## ◎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는 시기 20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20대!

- ▶ 인생의 목표는 언제 세우는 것이 좋을까? 우리나라민에게 인생 목표를 세우는 시기를 질문한 결과, 절반 가까 이(48%)가 20대에 세워야 한다고 응답했고, 40대(29%)와 50대(28%)를 거쳐 인생의 계획이 달성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 ▶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민 3명 중 1명은(34%) 20대라고 응답해, 20대층이 전 연령대 중 가장 힘든 세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목표 수립 vs 목표 달성 연령대 (60대까지, %)



[그림] 가장 행복한 vs 가장 힘든 연령대 (60대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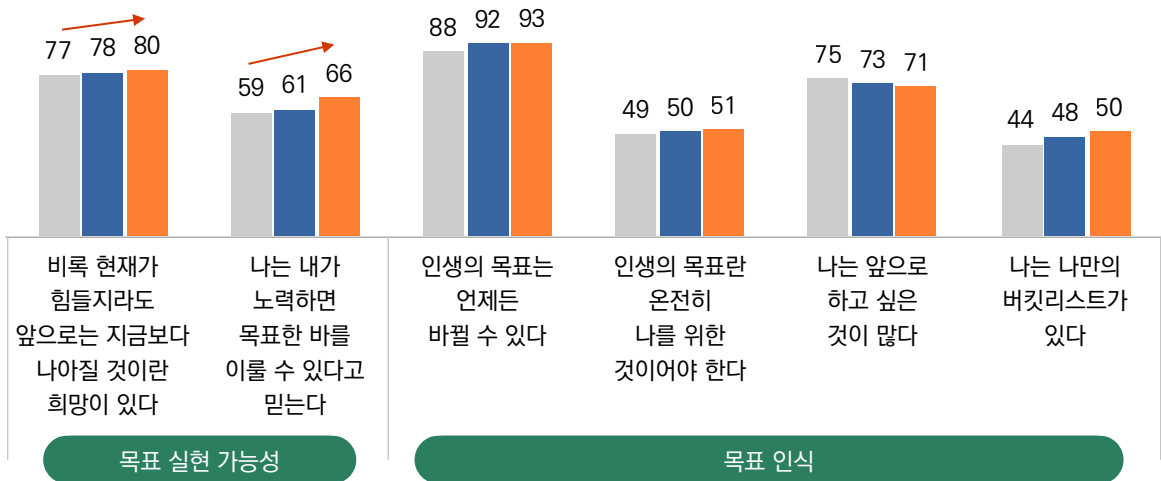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현대인의 꿈, 적성 및 인생 목표 관련 조사, 2022.06.22.(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3.23.~03.25)

## ◎ ‘나의 인생,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나아질 희망이 있다’ 80%!

- ▶ 인생 목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80%)이고, ‘내가 노력하면 목표는 이룰 수 있다’(66%)고 응답한 비율 모두 2016년 조사 이래 약간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 ▶ 또, 인생 목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압도적이었고, 온전히 나를 위한 목표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절반(51%)이나 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인생 목표 관련 인식 평가\*\* (동의율, %)

■ 2016년 ■ 2019년 ■ 2022년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현대인의 꿈, 적성 및 인생 목표 관련 조사, 2022.06.22.(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3.23.~03.25)

\*\*2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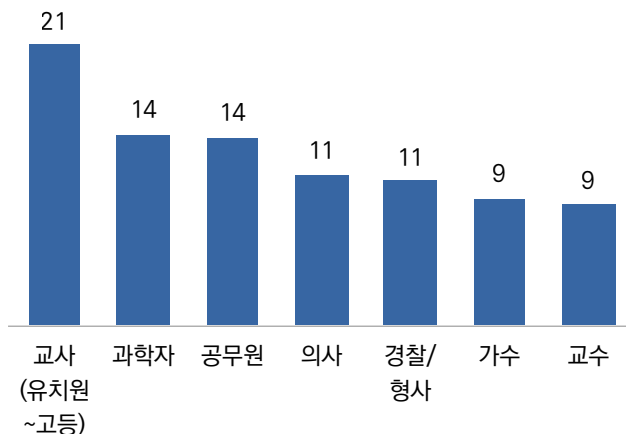
## 02

### [과거의 꿈과 지금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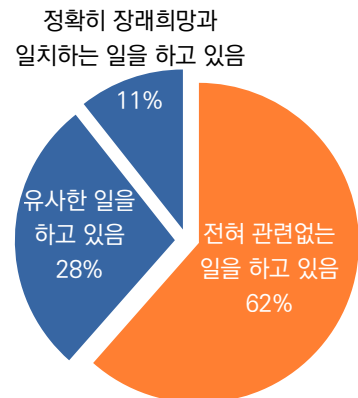
## 10명 중 6명은 과거의 희망과 전혀 관련 없는 일 하고 있다!

- ▶ 과거 학창시절에 어떤 장래 희망을 가졌는지 물었다. 그 결과, 교사가 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학자, 공무원, 의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안정적 혹은 전문적인 직업을 선호한 경우가 많았다.
- ▶ 현재 하고 있는 일(공부)이 과거 장래희망과 관련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10명 중 6명 정도(62%)였다. 반면 ‘정확히 과거의 희망과 일치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그림] 학창시절 장래 희망 (중복응답, 상위 7위, %)



[그림] 현재 하고 있는 일(공부)과 과거 장래 희망과의 비교 (과거 장래희망 있던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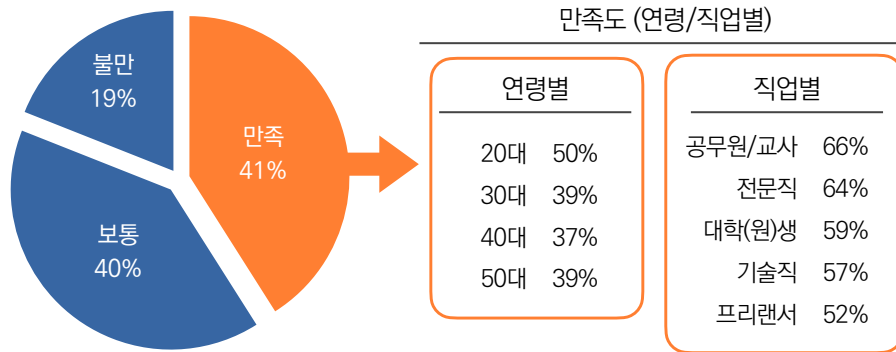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현대인의 꿈, 적성 및 인생 목표 관련 조사, 2022.06.22.(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3.23.~03.25)

## ◎ 한국인, 현재 하고 있는 일 만족도 41%로 비교적 낮아!

- ▶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공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만이 현재의 일과 공부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해 만족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 ▶ 또, 현재 하고 있는 일(공부)의 만족도는 20대가 50%로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교사'(66%)와 '전문직'(64%)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안전성' 및 '소득'과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현재 하고 있는 일(공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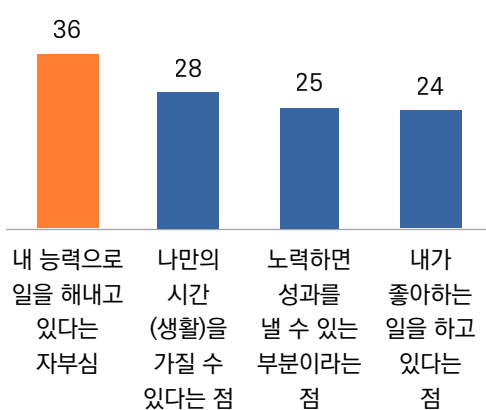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현대인의 꿈, 적성 및 인생 목표 관련 조사, 2022.06.22.(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3.23.~03.25)

\*\*5점 척도로(매우+약간)만족, (별로+전혀) 만족하지 못함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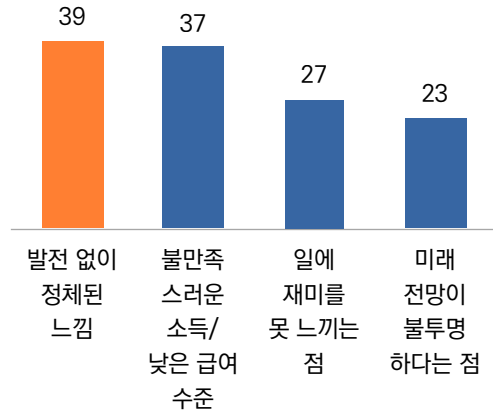
## ◎ 현재 하고 있는 일(공부) 불만족 이유, '발전 없이 정체된 느낌'과 '낮은 급여 수준' 높게 꼽아!

- ▶ 현재 하고 있는 일(공부)에 만족을 느끼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 (36%), '나만의 시간 확보 가능' (28%)가 중요한 만족 요인으로 응답됐고, 불만족 이유로는 '발전 없이 정체된 느낌' (39%), '낮은 급여 수준' (37%)가 높게 응답되었다.
- ▶ 일에 대한 만족/불만족 요인 모두 '흥미'와 '성취감', '발전 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현재 하고 일 만족 이유 (현재 하고 있는 일 만족자, 중복응답, 상위 4위, %)



[그림] 현재 하고 일 불만족 이유 (현재 하고 있는 일 불만족자, 중복응답, 상위 4위,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현대인의 꿈, 적성 및 인생 목표 관련 조사, 2022.06.22.(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3.23.~0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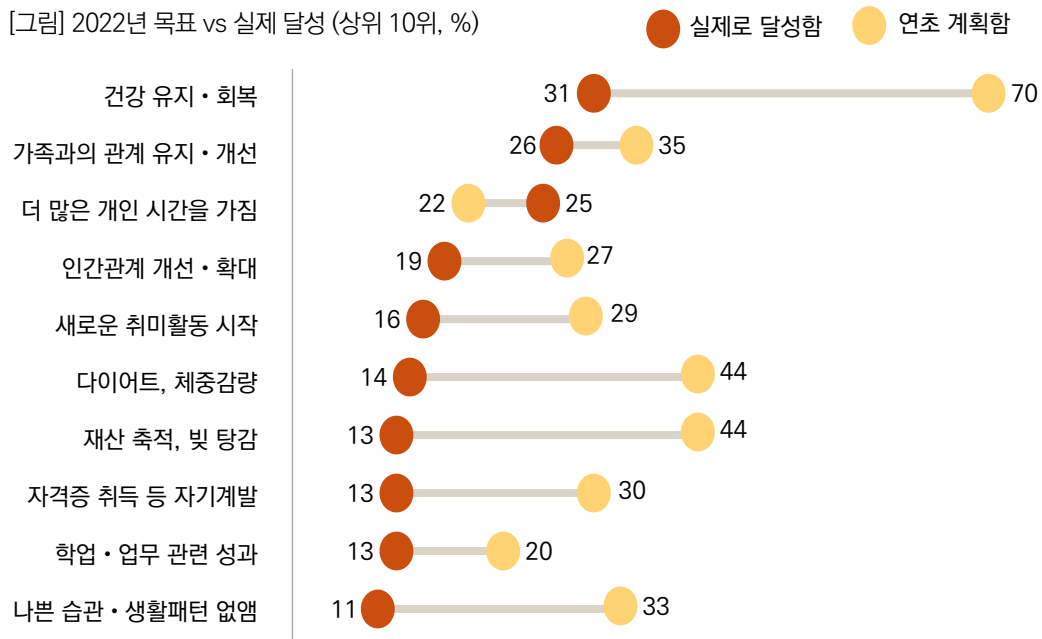
# 03

## [한국인의 자기계발]

### 연초에 70%가 건강 관리 계획했으나, 달성은 31%에 그쳐!

-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연초 야심차게 계획했던 목표 가운데 달성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 혹은 한 해 성과라고 내보이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적지 않다. 2022년 1월 한 해 목표에 대한 질문과 12월 실제 달성한 결과를 비교해 보니, 보기로 제시한 대부분 항목에서 연초 목표 대비 달성률이 크게 낮았다.
- ▶ 올해 1월 응답자의 70%가 건강관리를 한 해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번 조사에서 실제 이를 달성했다고 답한 사람은 31%에 그쳤다. 재산축적 및 빚 탕감(목표와 달성 차이 31%p), 다이어트 및 체중감량(목표와 달성 차이 30%p) 또한 성공률이 낮게 나왔고, 연초 계획보다 실제로 달성했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더 많은 개인시간을 가짐'이 유일했다.

[그림] 2022년 목표 vs 실제 달성 (상위 10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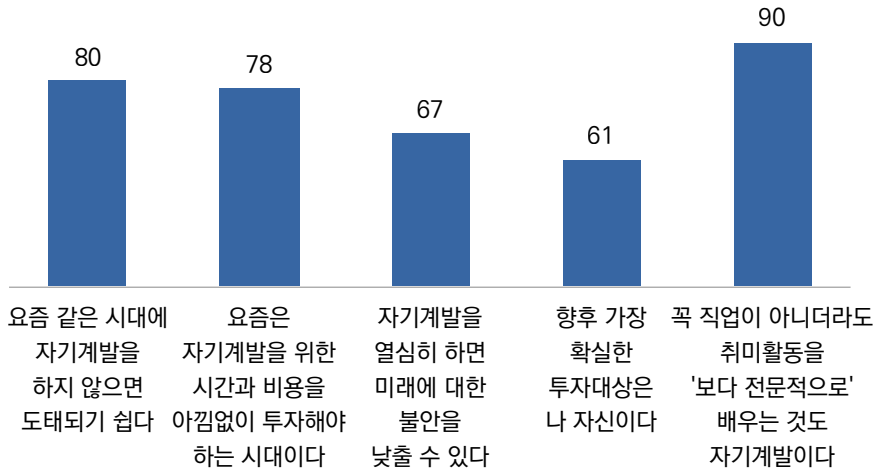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2022년 한 해 평가, 2022. 12. 28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1.7.~10, 2022.12.23.~26)

## ◎ 요즘은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하는 시대이다 78%!

- ▶ 자기계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살펴보면, 한국인 대다수(80%)는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고, 자기계발에 열심히 하면 미래에 불안을 낮출 수 있다(67%)고 보았다. 또, 확실한 투자 대상인 나의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78%)는 인식이 강했다.
- ▶ 한편으로 '직업이 아닌 취미활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자기계발로 인식하는 것'(90%)도 하나의 트렌드이다.

[그림] 자기계발 관련 인식\*\* (동의율,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자기계발 니즈 및 재능 공유 플랫폼 관련 인식 조사, 2022.07.08.(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4.29.~05.03)

\*\*2점 척도임

## ◎ 새해 목표 실현 위해 '결심은 66일간은 유지해야'!

- ▶ 한번 목표를 세울 경우, 얼마나 꾸준히 실천해야 습관이 될 수 있을까? 영국 런던대 연구팀(2010)의 반사행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행동을 약 66일 정도 반복하면 특별한 생각이나 의지 없이도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66일을 유지한다면 반사행동,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 ▶ 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 린셰핑대학 연구팀(2017)이 성인 1066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새해 목표를 조사하고 1년간 지켰는지 확인한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목표 설정 시 '긍정형', '능동형'(~ 할 것, ~을 시작할 것)으로 작성한 그룹이 '부정형'(~을 하지 않을 것, ~을 그만둘 것)으로 작성한 그룹보다 목표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새해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법

습관 형성을 위해 66일간 행동 유지하기

긍정형, 능동형 문장으로 목표 세우기  
예) 담배 피우지 말기 → 금연하기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새해 목표, 적어도 '3월 7일'까지 유지해야 하는 이유, 2023.01.01.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2/27/2022122701524.html](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2/27/2022122701524.html))

\*\*반사행동은 자극에 대해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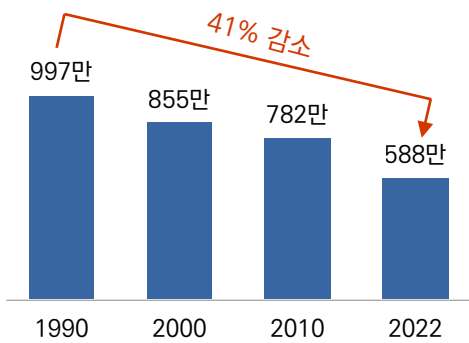
- 1.[유초중고 학생 수 감소 실태]
- 2.[부모 소득과 자녀의 대학 진학률]



## 우리나라 전체 학생수(유치원~고등학생), 한 세대 만에 41% 줄었다!

-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자료(2022.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학생 수'는 올해 588만 명으로 집계됐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단위로 볼 때, 30년 전인 1990년(997만 명) 대비 2022년 전체 학생 수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세대 만에 학생(유치원~고등학생)들이 10명 중 4명이 줄어든 셈이다.
-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유치원은 17명,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 23명으로 조사됐다. 과거 1990년도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1990년 53명→ 2022년 23명)가 57%나 떨어져 가장 많이 감소했고, 비교적 감소 폭이 작은 '유치원'도 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전체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변화 (명)



[표]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90	29	41	50	53
2000	26	36	38	43
2010	21	27	34	34
2022	17	21	25	23
1990년 대비 증감률	▽ 41%	▽ 49%	▽ 50%	▽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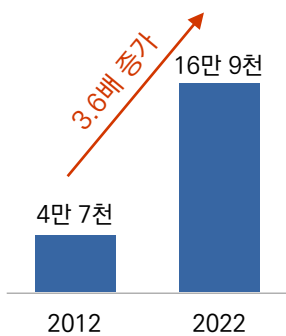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8.30

\*자료 출처(1990~2010년) : 교육부(과거: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2.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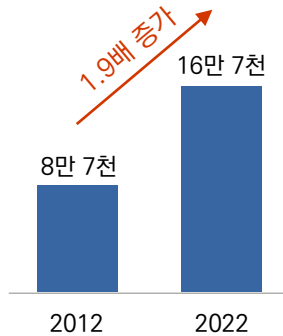
## ◎ 한국 내 다문화 학생 수, 10년 사이 3.6배 증가

- ▶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2022년 16만 9천 명으로 2012년(4만 7천 명) 대비 10년 새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회 내에서도 다문화 교육 및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 ▶ 한편 한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2년 대비 10년 사이 1.9배 증가(2012년 8만 7천 명 → 2022년 16만 7천 명) 했다.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국가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 23%, '우즈베키스탄' 5%, '몽골' 4% 등의 순이었다.

[그림] 다문화 학생 수 (명)



[그림] 외국인 유학생 수\*\* (명)



[표] 외국인 유학생 국가별 비중 (2022, 상위 5위)

국가	비중
1. 중국	40%
2. 베트남	23%
3. 우즈베키스탄	5%
4. 몽골	4%
5. 일본	3%

\*자료 출처 : 교육부,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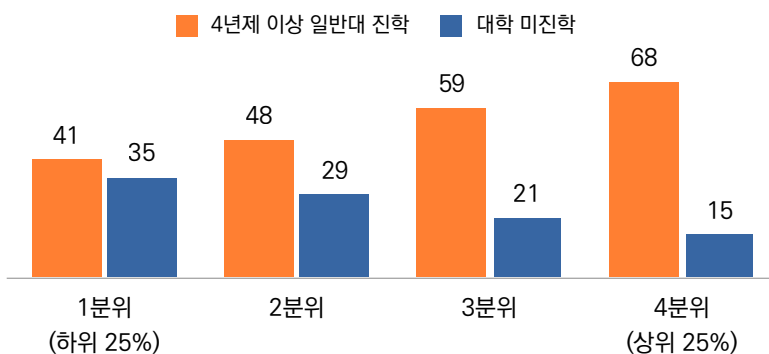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 수(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어학연수생, 교육과정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연수생)을 모두 포함한 재적학생 기준임)



##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대학에 갈 확률 높다!

- ▶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을 1분위(하위 25%)부터 4분위(상위 25%)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학력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즉, 부모가 잘 살수록 자녀가 4년제 이상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 ▶ 반면, 1분위(하위 25%) 가정 자녀의 경우 대학 미진학 비율이 4년제 이상 일반대 진학 비율 수준까지 올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의 대학 진학률\*\* (%)



\*자료 출처 : 동아일보, 부모 소득이 대학 진학 좌우... '사교육 의존' 방지 안 된다, 2022.12.1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8/1170542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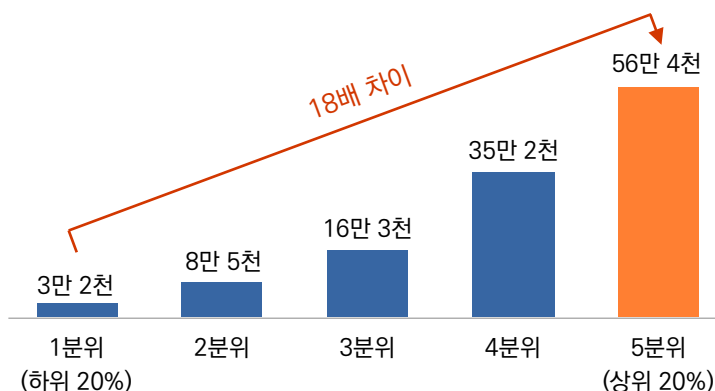
참조) 원자료 출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KRIVET Issue Brief 247호), 2022.12.15

\*\*2020년 기준 소득과 학력 상태임

## ◎ '하위 20% 가구'와 '상위 20% 가구', 월 평균 교육비 18배 차이!

- ▶ 그렇다면 자녀의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비\*\*는 소득 수준별로 얼마나 차이를 보일까? 통계청의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1분위 : 하위 20% ~, 5분위 : 상위 20%) 가구 월 평균 교육비는 '1분위' 3만 2천 원, '5분위' 56만 4천 원으로 집계됐다. 하위 20% 가구와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교육비 차이는 무려 18배에 달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림] 소득 5분위별 가구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 (2022년 3/4분기 기준, 원)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11.17.

\*\*정규교육, 학원·보습교육, 기타교육 포함(단, 성인학원교육도 포함되어 있음 유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87호\(2022년 12월 5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이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등

◎ 사회 일반

[2023년 새해 전망, 주관적 행복감, 핵무기 실사용 위험성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  
한국갤럽\_2022.12.17.

[그래도 따뜻한 세상...“기부하고 싶다” 68%](#)

매일경제\_2022.12.30.

[30대 남성, 코로나19로 우울장애, 극단적 선택 위험 늘었다](#)

조선비즈\_2022.12.27.

[우리나라 여성 38.6% '성폭력 경험'...디지털 성범죄 증가세 심각](#)

한겨레\_2022.12.29.

[국민 10명 중 7명 OTT 본다...가장 많이 이용하는 OTT는](#)

중앙일보\_2022.12.27.

["공부하고 올게요"...직장인 휴직 쉬워진다](#)

한국경제\_2022.12.28.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어". "머리는 품이나"...직장인 울린 '폭언'](#)

서울경제\_2022.12.27.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인식조사 발표](#)

팜뉴스\_2022.12.27.

["한국인 81%, 중국에 부정적"...'반중정서' 56개국 중 가장 강해"](#)

중앙일보\_2022.12.27.

◎ 경제 / 기업

[50개사 CFO 긴급 설문 "어느 때와 견줘도 경기 최악, 하지만..."](#)

한국경제\_2023.01.01.

◎ 건강

[한국남성 10명중 4명 살면서 암 걸려...다른 나라 보니](#)

매일경제\_2022.12.28.

[잠 못 자는 70만 명... '건강 수면 10계명'부터 새겨라](#)

헬스조선\_2022.12.31.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국제

['가장 강력한 국가' 韓이 日 꺾었다…美선정 '세계순위' 대역전](#)

중앙일보\_2023.01.01.

◎ 기독교 / 종교

[\[국민일보 올해의 책\] 하나님의 사랑·자기를 내어주심의 은혜 만끽하길](#)

더미션(국민일보)\_2022.12.30.

[송춘장로교회의 '이 교구', 다자녀 가정 63%의 비결은?](#)

크리스천투데이\_2023.01.02.

◎ 이슈 큐레이션

[“한국인, 서울대 꿈꾼다지만… 하버드는 행복과 관련 없었다”](#)

동아일보\_2023.01.02.

◎ 트렌드

[“퇴근 않는 로봇, 이길 수 있겠어요?” 당신의 미래 생존법](#)

국민일보\_2023.01.01.

["새해엔 격하게 움직일래요"…'호모 모투스' 된다](#)

연합뉴스\_2023.01.02.

◎ 칼럼

[임신·육아가 위기라는 청년층…육아공동체 확산을](#)

중앙일보\_2022.12.29.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세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캐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스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강정남, 강종희,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권순홍, 김고은, 김관상, 김기혁, 김동찬,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동민, 김성식, 김성은, 김성현,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기,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인수, 김중천,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 찬, 김태철,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홍기, 계만석, 나광근, 나윤만, 남기환, 남도현, 남상태, 노기환, 노현민,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상훈,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재덕,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지혜,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변형석,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경복, 서기원, 서연우, 서영진, 서우정, 서은영,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오뜸, 신명자, 신승민,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심명현, 안요한,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강일,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진웅, 유형창, 윤도현, 윤동하, 윤성덕, 윤여민, 윤영조, 윤정국, 윤치호, 윤홍경, 이경만, 이경선, 이국희, 이기원,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석윤, 이선진, 이성근, 이성덕,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재혁,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형근,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원하나, 장명철,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준영, 장진수, 장재영, 장형철, 전근영, 전병철, 전응림, 전치영, 정기욱, 정부활, 정영자,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진혁, 정재용,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인화,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명호,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최호균, 한동준, 한병록, 한영숙,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익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신규 후원 |

(주) 웨슬리퀘스트(대표이사 정중섭), 양승일, 이상성, 박승수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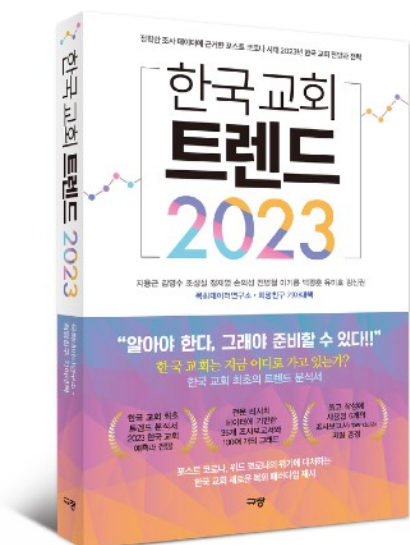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 연구소 소식.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